

속격 및 명사 병치 구성에 관한 연구 : 한국어와 불어를 중심으로*

박 정 섭
(서강대학교)

Bak, Jung-Sup. (2002). Genitive and noun parallel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38(3), 907-919.

This article aims to give an explanation to the fact that French genitive constructions 'N1 de N2' can be translated in Korean sometimes as genitive construction 'N2 ui N1', sometimes as noun parallel construction (henceforth NPC) 'N2 N1'. We suppose that in Korean NPCs are formed by one of the following processes: (i) derivation from genitive construction by incorporation of N2 onto N1, (ii) lexical composition, (iii) phonetic deletion of the Case-marker 'ui'. In Korean NPCs, N2 is in most cases an internal argument of N1. And in general, the incorporated element should be an internal argument of the incorporating element. So we propose that NPC can be formed from genitive construction when N2 is an internal argument of N1 and is incorporated onto it. It follows that the Korean counterpart of French genitive constructions will be NPC if the incorporation in question takes place, and otherwise it will be a genitive construction as in French. As for (ii), we presume that in Korean, lexical composition can derive the form 'N2 N1' too. But as lexical composition often depends on cultural needs and is not a productive and systematic process, there are not many Korean examples of lexical composition which translate French genitive constructions. Finally we suppose that in Korean the genitive marker 'ui' can be phonetically invisible just like nominative or accusative markers. If so, the third form of NPC will be obtained. But this third possibility is permitted only in colloquial Korean.

Key words: French, Korean, genitive, de, ui, noun parallel construction in corporation

1. 도입

불어의 전형적인 속격 구조는 'N1 de N2'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 구조가

* 본 연구는 200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논문을 자세히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세 분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는 속격 구성 'N2의 N1'로 되기도 하지만 이른바 명사 병치 구성 'N2 N1'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번역은 의미적 등가성을 전제한다고 볼 때, 한국어의 명사 병치 구성은 속격 구성과 유사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어와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는 명사 병치 구성이 대단히 생산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불어의 'N1 de N2'의 형식이 한국어의 속격 구성으로는 번역될 수 없고 'N2 N1' 형식으로서의 번역만 허용되기도 한다(예: *chaise de jardin* => *'정원의 의자', '정원(용) 의자'). 물론 이와 반대로 한국어의 속격 구성으로서의 번역만 가능하고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 *plaisir d'amour* => '사랑의 기쁨', *'사랑 기쁨').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A) 불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명사 병치 구성이 왜 용이한가?
 (B)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명사 병치 구성이 만들어지는가?
 (C) 어떤 경우에 속격 구성만 허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은 배제되는가?
 (D) 어떤 경우에 명사 병치 구성만 허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속격 구성은 배제되는가?

1. 불어의 'N1 de N2' 구조

불어의 DE는 매우 다양한 용법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는 'N1 de N2'와 같은 구조에서 N2 앞에 나타나는 용법도 있다.¹⁾ DE의 이 용법을 Bartning(1993, 1996)은 다시 명사구 내에서 N2의 의미적 역할이 문맥(contexte)이나 언어외적(extralinguistique)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담화적, 화용론적 용법과²⁾ N2의 의미가 N1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결정되는 이른바 원형적(prototypique) 용법을 구별하고 있다. 이 원형적 용법도 또다시 여러가지 하위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아래에 예시된 '양화적 용법'과 '품성적 용법'도 있다.

1) DE는 본문에 제시된 용법 외에도 다음의 세 가지 용법을 가진다. 첫째, DE는 부정법절을 유도하는 보문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예: *J'ai demandé à Pierre de partir pour Paris.* '나는 피에르에게 파리로 떠나도록 요구했다.'). 둘째, 정관사, 지시형용사 등과 결합하여 부분관사(article partitif)를 이루어 전체가 아닌 부분적 양을 나타낼 수 있다(예: *Pierre boit de la bière.* '피에르는 맥주를 마신다.'). 셋째, 문장에서 전치사구를 형성하는 해어가 될 수 있다(예: *Pierre vient de Paris.* '피에르는 파리에서 온다.').

2) Bartning(1996:30)은 Duras의 L'Amant '연인'에서 나오는 표현 중, *la fille du bac* '배의 소녀'를 담화적 용법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 소설에서는 처음 '배'가 언급된 후 3쪽이 지나서 다시 문제의 '소녀'를 상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양화적 용법)³⁾⁴⁾

- J'ai bu un litre de lait (Hulk 1996, p. 44)

‘나는 우유 1리터를 마셨다’

- Je cherche quelqu'un de sérieux pour faire ce travail (Hulk 1996, p. 45)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진지한 누군가를 찾고 있다’

(품성적 용법)

- Cet emmerdeur de Paul est pourtant parfois amusant (Ruwet 1982, p. 276)

‘그 성가신 녀석 폴이 그래도 때로는 재미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상응하는 용법을 찾기 힘든 이러한 용법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Bartning(1996)은 Milner(1982)의 분석에 기초하여 원형적 용법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범주는 ‘(de) N2’가 넓은 의미의 ‘소유’(possession)을 나타내는 용법이고 두 번째 범주는 ‘de N2’가 넓은 의미의 ‘기원’(origine)을 표현하고 있는 용법이다. Bartning, Milner 등은 몇 가지 통사적 테스트를 근거로 첫 번째 용법의 DE는 단순한 속격 표지이고 두 번째 용법의 DE는 ‘기원’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고 간주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테스트는 ‘de N2’가 명사구 밖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le thé de Chine’/‘le thé est de Chine’(중국 차/그 차는 중국산이다)처럼 ‘de N2’가 명사구 밖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그 때의 DE가 전치사임을 의미하는 반면에 ‘la voiture de Jean’/*‘la voiture est de Jean’(장의 자동차, Bartning, 1996, p. 38)처럼 DE가 명사구 밖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속격 표지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들의 두 번째 테스트는 N2를 강세형 대명사로 대치해 보는 것이다. DE가 전치사라면 N2가 대명사로 대치될 수 있는 반면에(예: le livre de Sartre/le livre de lui ‘사르트르의 책’/‘그의 책(그가 쓴 책)’, Bartning, 1996, p. 34), DE가 단순한 속격 표지라면 불어의 속성상 N2가 대명사로 대치될 때, 그 대명사와 결합하여 소유사 등의 형태로 바뀔 것이므로 ‘de + 대명사’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예: *‘la voiture de lui’ vs. ‘sa voiture’ ‘그의 자동차’).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기본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⁵⁾

3) 한 논평자는 한국어의 속격 구성에도 ‘1 리터의 우유’와 같이 불어 DE의 양화적 용법에 상응하는 용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N1과 N2의 순서가 일반적인 속격 구성에서와 다르다. 즉, 불어의 ‘N1 de N2’는 한국어의 ‘N2의 N1’으로 번역되지만 이 경우에는 ‘N1의 N2’가 된다. 어쨌든 ‘1 리터의 우유’에서 ‘1 리터’는 비논항적 요소이므로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 ‘*1 리터 우유’는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듯하다(cf. (11)-(15)와 관련 논의).

4) Azoulay-Vincent(1985) 등은 두 번째 예문처럼 DE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구문이 논리형태(Forne logique)에서 변형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Hulk(1996)는 이 구문을 양화적 용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불어 속격 구성의 한국어 번역방식

이제 불어의 속격 구성 'N1 de N2'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다음 세 가지 형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i) 'N2의 N1', (ii) 'N2 N1', (iii) 기타 형태. 'N1 de N2'에서 DE가 속격 표지인 경우 한국어의 속격 표지 '의'가 포함된 (i)의 구성으로 번역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불어의 속격 구문이 (ii)의 구성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는 각각 2.1과 2.2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불어의 속격 구문은 이밖에도 'amour de la nature'/'자연에 대한 사랑'(cf. *'자연의 사랑'), 'offre d'emploi'/'구인(광고)', 'table des matières'/'목차' 등과 같이 속격과 무관한 표현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소쉬르적 의미의 '기호의 자의성'이나 두 사회의 문화적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대상으로 (i), (ii)로 제한하고자 한다.

2.1. 'N2의 N1' 구성으로의 번역

다음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불어의 속격 구성 'N1 de N2'는 한국어의 'N2의 N1'로 번역될 수 있다.

(1) la voiture de Jean '장의 자동차'

(2) les bibelots du salon '거실의 골동품들'

한국어에서 '의'는 일반적으로 '속격 표시/부여'라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기능 범주(*catégorie fonctionnelle*)로서 어휘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⁶⁾ 그러므로 DE가 속격 표지가 아니라 '기원'(origine)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라면(1절에서의 논의 참고), 한국어의 'N2의 N1'로 번역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의 예들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5) 사실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이면 전치사로서의 DE가 포함된 'N1 de N2' 구성은 더 이상 속격 구성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모든 'N1 de N2' 구성을 계속하여 속격 구성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6) 한 논평자는 '나의 살던 고향'을 예로 들면서 한국어에서 '의'가 때로는 주격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의 성격은 매우 미묘하여 그 예문의 '나(의)'가 일반적인 문장의 주어 가지는 격, 즉 주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의'가 의미적 기능 보다는 문법적 기능, 즉 격부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 논평자는 '이 방의 그림'과 같은 예문에서 '의'가 전치사(그 논평자의 용어를 빌면 '후치사')로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의' 자체가 어휘적 내용을 가진 전치사/후치사로서 '이 방'과 같은 명사구가 장소의 의미로 해석된다기 보다는 '이 방'과 '그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많지 않은 의미관계가 문맥에 따라 적절히 선택, 해석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의'를 속격 표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la lettre des Etats-Unis? *‘미국의 편지’, ‘미국에서 온 편지’

(4) les vols de Paris *‘파리의 비행(기)’, ‘파리발 비행기’

그런데 흔히 ‘기원’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불어 예문들은 한국어의 ‘N2의 NI’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위의 예측에 대한 반례가 되고 있다.

(5) ㄱ. le livre de Jean

ㄴ. 장의 책 (장이 책의 저자인 경우)

(6) ㄱ. la photo de Jean

ㄴ. 장의 사진 (장이 사진을 찍은 사람인 경우)

Bartning(1996) 등은 ㄱ 예문들에서 ‘장’이 ‘책’이나 ‘사진’의 ‘기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분석이 옳다면,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예측이 올바른 것이라면, ㄴ 처럼 ‘N2의 NI’의 구성으로 번역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ㄴ 예문들은 문법적이며 ㄱ 예문들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 (4)와 (5), (6)의 예문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de N2’가 (3), (4)에서는 명백하게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5), (6)에서는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음을 주목하자. 즉, (5), (6)의 ㄱ 예문들에서 ‘(de) N2’는 ‘기원’ 뿐만 아니라 ‘동작주(agent)의 의미역을 가진다고도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⁸⁾⁹⁾ 기원, 목적지 등의 비논항적 요소들이 문장이나 명사구내에서 실현될 때는 반드시 특별한 전치사와 함께 나타나는 반면에, 동작주와 같은 논항(argument)이 실현될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N2가 동작주라면 (5), (6)ㄱ에서의 DE는 전치사가 아닌 속격 표지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5), (6)ㄴ으로의 번역 가능성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N2를 동작주로 간주할 수도 있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는 소유사(le possessif)로

7) 한 논평자는 이 표현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서 공표한 편지’의 의미로는 수용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회한 프랑스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표현이 그러한 의미로 수용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우 작위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고도의 은유나 의인화를 강제한다면 논평자의 주장대로 그 표현을 받아들일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논평자가 제안한 해석 가능성이 본 논문의 분석과 모순되지는 않는 듯하다. 즉 N2를 동작주로 보는 해석이 불어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만큼 N2가 ‘기원’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국어 번역 ‘미국의 편지’도 수용되기 힘든 것 같다.

8) 그러나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와 같은 구문에서 두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록 두 개념의 경의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예문에 따라서는 실제적 차이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일 듯하다. 예컨대 ‘피에르로부터 나온 책(기원)은 궁극적으로 ‘피에르가 집필하여 만든 책(동작주)과 같은 지시표를 나타내고 있다.

9) 이하의 논의에서 우리는 Gruber(1976), Jackendoff(1987), Hale & Keyser(1993) 등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역 이론을 받아들이고 관련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의 대치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소유사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 예컨대 영어에서 소유사 'his', 'her', 'their' 등은 명백한 전치사구('from ...', 'with ...' 등)를 대신할 수 없고, (속격 표지라고 볼 수 있는) of N' 또는 'N's'만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다. 불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어휘적 전치사를 핵으로 하는 전치사구는 소유사로 대치될 수 없고 'de N'만 소유사로 대치될 수 있다. Bartning, Milner 등과 같은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DE가 어휘적 내용을 가지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동시에 격 표시 등의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기능범주일 수도 있다면, 소유사로의 대치가능성은 후자의 경우로 제한될 것이다.¹¹⁾ 그런데 (5), (6)ㄱ의 'de N2'는 각각 son livre '그의 책', sa photo '그의 사진'에서처럼 소유사로 대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5), (6)ㄱ과 같은 구문에서 DE가 전치사가 아니라 속격 표지이고 'N2'가 논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3), (4)와 같은 예문에서 명백한 전치사 DE가 소유사로 대치될 수는 없다. 즉 (3), (4)는 각각 'leur lettre', 'ses vols' 등으로 바꾸어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사로의 대치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5), (6)과 같은 구문에서 N2를 동작주 논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왜 (5), (6)ㄱ이 (5), (6)ㄴ으로 번역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동작주 등의 논항으로 해석되기 힘든 문맥에서는 그만큼 'de N2'가 소유사로 대신되기도 힘들고 한국어의 'N2'로 번역되기도 힘들다. 다음 예에서는 '(de) N2', 즉 '중국'이 '동작주' 또는 '장소'(lieu)로 해석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므로 ㄴ과 ㄷ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 듯하다.

(7) ㄱ. le thé de Chine

ㄴ. ?중국의 차(cf. 중국 차)

ㄷ. ?son thé '그 나라의 차'

요컨대 (3)-(7)에 제시된 한국어 예문들의 수용성 차이는 상응하는 불어 예문에서 '(de) N2'가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10) 그러나 Bartning(1996, pp. 39-40)은 (5), (6)ㄱ과 같은 예문에서 DE가 전치사적인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소유사는 전치사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처럼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1) 한 논평자는 불어에서 'de N'은 EN으로도 대치되는데, 이 때 de N'이 전치사구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사가 명사구를 대신한다는 본 논문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는 EN이 반드시 'de ...'를 대신하며, EN으로 대치될 수 있는 'de ...'는 'son', 'leur' 등의 소유사로도 대치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EN은 반드시 'de ...'를 대신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예: un grand arbre → en ... un grand), 또한 EN으로 대치될 수 있는 'de ...'가 소유사로 대치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예: la haine des immigrés → en ... la haine, 그러나 'immigrés'가 목적어일 경우, 즉 '이민 자들에 대한 증오'의 의미로는 *leur haine, cf. Bartning, 1996, p. 39)

2.2. 'N2 N1' 구성으로의 번역

2.2.1. N2의 논항적 성격과 명사 병치 구성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자.

(8) la libération des prisonniers ‘포로의 석방’/‘포로석방’

(9) le conducteur du camion ‘화물차의 운전자’/‘화물차운전자’

(10) la photo du chat ‘고양이의 사진’/‘고양이사진’

(8)과 (9)는 각각 동사구 ‘libérer les prisonniers’, ‘conduire le camion’에 상응하며 그것들과 같은 의미역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10)은 이른바 도상명사구문이다. 도상명사는 일반적으로 ‘대상’(thème), ‘동작주’, ‘소유자’(possesseur) 등의 논항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¹³⁾ 따라서 위의 예문들에서 N2는 N1의 논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8)-(10)의 예문들은 불어의 속격 구문이 한국어의 속격 구성뿐만 아니라 명사 병치 구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비논항적 요소가 속격 표지와 함께 명사구 내에 실현되는 경우에는 명사 병치 구성을 구성하기 힘들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11) ㄱ. 최선의 보호 (cf. 최선으로 보호하다)

ㄴ. ??최선보호 (김홍수 1995, p. 124)

(12) ㄱ. 충격의 패배

ㄴ. ??충격패배

위의 예문들에서 N2는 부사어로서 명백하게 비논항적 요소이다. 이 경우에 속격 구성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이 허용되지 않음을 ㄴ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2) 논평자는 (9) 예문과 관련하여 ‘운전자’라는 단어의 내부 성분인 ‘운전’이 ‘운전자’ 외부의 성분과 의미역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휘주의 가설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운전’/‘conduite’, ‘운전자’/‘conducteur’ 등은 모두 ‘운전하다’/‘conduire’와 동일한 선택자절을 가지고 어휘부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어휘주의 가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화물차’는 ‘운전자’의 내재 논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도상명사에 대하여는 동작주 논항과 소유자 논항이 함께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구문이 가능하다: ‘le portrait d’Aristote de Rembrandt du collectionneur’(그 수집가의 렘브란트작 아리스토텔레스 초상화) (Milner, 1982, p. 77).

14) 특히 내재 논항(argument interne)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내재 논항이란 어휘핵(tête lexicale)으로부터 의미역(rôle thématique)을 받는 논항으로서 통사구조에서 핵과 자매관계를 형성한다(cf. Williams, 1981).

이러한 사실을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3) 명사 병치 구성의 조건: N2가 N1의 논항이면 속격 구성 'N2의 N1'과 특별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명사 병치 구성 'N2 N1'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들에서는 N2가 명백하게 부사어는 아니지만 역시 비논항적 요소임은 틀림없는 듯하다.

- (14) ㄱ. 사랑의 아픔
 ㄴ. ?*사랑아픔 (임홍빈, 1998, (22a, b))
- (15) ㄱ. 감격의 우승
 ㄴ. ?*감격우승 (임홍빈, 1998, (25a, b))

임홍빈은 (14)ㄱ에서 N2에 해당하는 '사랑'이 '사랑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N2가 논항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15)에 대하여는 이러한 설명을 적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4)ㄱ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긴 아픔'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문들에서 N2는 비논항적 요소라고 보겠으며, 따라서 ㄴ의 예문들이 비수용적인 것은 (13)의 조건에 부합되는 현상이라고 간주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10)에 예시된 일부 명사구 내에서는 문장에서와 유사하게 의미역 구조가 있으며, N2가 N1의 논항일 경우에는 속격 구성 'N2의 N1'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명사 병치 구성 'N2 N1'이 존재하는 반면에 N2가 비논항일 경우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2.2.2. 분석

우리는 2.2.1에서 N2의 통사적 성격에 따라 속격 구성 'N2의 N1'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의 존재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통사적 기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어에서는 문장차원에서 명사 병치 구성을 상기시키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있음을 주목하자. 명사 병치 구성은 결국 명사보어의 속격 표지가 탈락하고 명사구의 핵과 결합한 형태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래에 예시된 것처럼 한국어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격 표지 없이 동사와 결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 (16) 청소를 하다/청소하다

- (17) 노래를 하다/노래하다

이 현상에 대하여는 즐고(1992, pp. 310-311)에서 제시된 바 있는 포함(incorporation)이론적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예문에서 동사 ‘하’의 목적어/내재 논항인 명사 ‘청소’, ‘노래’ 등은 격 자질을 일반적인 방식대로 동사의 지배(또는 최근의 용어를 사용하면 ‘일치’)를 통해 인허받을 수도 있지만, Baker(1988)의 이론은 핵어 N이 이동하여 상위의 핵어 V에 부가되는 명사 포함이 일어나면 N과 V 사이에 지표 공유(coindexation)가 가능해져서 명사의 격 자질이 인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합이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명사 병치 구성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다음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8)-(10) 참고).

(18) 포로의 석방/포로석방

(19) 고양이의 사진/고양이사진

위 예문에서 내재 논항인 ‘포로’, ‘고양이’는 각각 명사구의 핵인 ‘석방’, ‘사진’으로부터 속격을 부여받아 속격 구성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나, 포함에 이은 지표 공유를 통해 격 자질을 인허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명사 병치 구성의 형태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명사구 내의 포함이 (16), (17)에 예시된 동사구 내의 포함과 다른 점은 핵의 품사가 다르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 동사처럼 명사도 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함자와 피포함자 사이의 구조적 관계도 두 경우에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구 내의 포함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 이처럼 명사 병치 구성이 속격 구성으로부터 포함을 통해 도출된다고 가정하면 (13)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N2가 비논항인 경우에 포함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속격 구성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의 부재가 올바르게 예측된다(cf. (11)-(15)).¹⁵⁾

위에서는 N2가 논항이 아니며 속격 구성만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래에 예시된 것처럼 N2가 논항이 아니지만 ‘N2-N1’ 구성만 있고 상응하는 속격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 고의조작(<- 고의로 조작하다)/*고의의 조작

(21) 확대실시(<- 확대하여 실시하다)/*확대의 실시 (김홍수 1994, p. 124)

이러한 예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N2가 비논항적 요소이므로 이 예문들에 대하여 포함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N2가 핵이동하여 N1에 부가된 핵어라고

15) 일반적으로 피포함자가 포함자로 이동하여 부가될 때는 ‘핵이동 제약’에 따른다. 핵이동 제약은 의미 역지배(⊖gouvernement)되는 요소의 핵어만이 이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논항적 요소는 포함이 불가능하다(핵이동 제약에 관하여는 cf. Travis, 1984, p. 131).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N2도 하나의 독립된 명사구라고 가정하면 격 자질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명사 병치 구성에는 격 표지가 없으므로 ‘격 여과’(Filtre sur les Cas)를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에 예시된 표현들은 어휘 부에서 만들어진 합성어(mot composé)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합성어에서는 N1과 N2의 의미관계가 규칙성을 찾기 힘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예컨대 앞서 논의되었던 ‘기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때때로 ‘le thé de Chine’/‘중국 차’처럼 ‘기원’을 나타내는 불어의 ‘de N2’가 한국어의 명사 병치 구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번역이 가능하지 않은데(예: ‘la lettre des États-Unis’/‘??미국 편지’), 그 이유는 한국어의 합성어가 우리의 문화적 필요성 등에 따라 제한된 수의 개념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불어의 속격 구성으로 표현되는 개념의 일부만이 한국어의 합성어-명사 병치 구성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N1-N2’ 구성이 포함의 결과 도출된 형식이거나 합성어일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포함의 결과도 합성어도 아닌 속격 표지의 탈락 현상이다. 다음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

(22) ㄱ. 교실의 의자/교실 의자

ㄴ. 세 시의 약속/세 시 약속

ㄷ. 철수의 자동차/철수 자동차

위의 예문들은 ‘교실에 있는 의자’, ‘세 시에 있는 약속’, ‘철수에게 있는 자동차’ 등으로 해석되므로 N2가 공간적, 시간적, 관념적 ‘장소’(lieu)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사구 내의 요소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위 예문들에서처럼 N2에 일정한 의미역이 부여되는 경우 논항으로 간주하여도 될 듯하다. 그러나 포함은 의미역 지배되는 이른바 내재 논항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위의 예문들에서 N2가 내재 논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위 예문들에서 N2가 실제로 내재 논항이라면 속격 구성 및 그것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이 동시에 완전하게 허용될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직관으로는 (22)의 예문들의 명사 병치 구성은 (18)-(19) 또는 (20)-(21) 등에 비하여 다소간 구어적 성격을 가지는 듯하다. N2가 외재 논항으로 보이는 다음 예문에서도 명사 병치 구성에서는 비슷한 구어적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다.¹⁶⁾

16) 한 논평자는 (23) 등의 예문이 문어체로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논평자도 이러한 예문의 ‘구어적’ 성격에 기초한 본 논문의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홍수(1994, p. 122)는 ‘저 교사 주장은 일리가 있어’와 같은 예문에 대해 “[...] 주어적 속격에서 속격조사의 비실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구어의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구어/문어의 구별에 대한 직관이 화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에서는 운율적 요인에 의해 격조사 등의 실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3) ㄱ. 정부의 개입/정부 개입

ㄴ. 김교수의 강연/김교수 강연

만약 이처럼 (22), (23)의 예문에서 N2가 외재 논항이고, 또한 명사 병치 구성이 구어적 성격을 가진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어의 격 표지 탈락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24) ㄱ. 철수가 영희 \emptyset 만났어ㄴ. 철수 \emptyset 학교에 갔어

이처럼 문장에서의 격조사 탈락이 적어도 한국어(또는 일본어)의 구어에서는 심각한 문법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격조사 탈락은 한국어의 구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는 문법규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조사 탈락이 속격 표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2), (23) 예문의 명사 병치 구성의 구어적 성격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¹⁷⁾ 또한 외재 논항의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때 (22), (23)의 명사 병치 구성을 격조사 탈락과 같은 음성형태(Forne phonétique)의 현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명사 병치 구성이 이루어지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불어의 'N1 de N2' 구성이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되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지는 못하고 몇몇 전형적인 경우만 살펴보았다. Bartning(1996)에서 제시된 그 밖의 불어 속격 용법들의 한국어 번역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담화적 용법에서 N2는 N1의 논항이 될 수 없으므로 포함이나 격조사 탈락에 의한 명사 병치 구성으로의 번역은 불가능하고, 또한 이 용법은 특수한 담화적 상황을 전제하므로 합성어로의 번역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담화적 용법의 'N1 de N2'는 'N2의 N1'으로만 번역될 수 있다. Bartning이 제시한 DE의 원형적 용법 가운데 '친척관계'(예: l'épouse de Jean '장(의) 부인'), '전체와 부분의 관계'(예: la poignée de la porte '문(의) 손잡이'), '범주화 관계'(le problème des immigrés '이민자(의) 문제'), '시간과 사건'(예: le moment de la révolte '봉기(의) 순간') 등에서는 불어 예문에 대하여 한국어의 속격 구성과 명사 병치 구성으로의 번역이 모두 허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예문들에서 N2가 N1의 내재 논항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포함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결정적

17) 일반적으로 문장에서의 격조사 탈락은 논항에 한하여 허용된다(예: '이 집*(에/으로) 철수가 왔다'). 속격 표지 탈락도 논항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면 (11), (12), (14), (15)에 예시된 속격 구성에서 비논항적 요소 N2에 '의'가 의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2), (23) 예문에서 N2가 외재 논항이라고 간주하면 그 예문들에서 명사 병치 구문이 가능한 것도 결국 (13)의 조건에 부합된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사 병치 구성이 구어적 성격이 있으면 외재 논항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위 예문들 가운데 ‘봉기 순간’만이 구어적 성격을 가지고 나머지 예문에서는 명사 병치 구성이 속격 구성만큼이나 자연스럽다.

3. 요약/결론

우리는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했었다.

- (A) 왜 붙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명사 병치 구성이 용이한가?
- (B)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명사 병치 구성이 만들어지는가?
- (C) 어떤 경우에 속격 구성만 허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명사 병치 구성은 배제되는가?
- (D) 어떤 경우에 명사 병치 구성만 허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속격 구성은 배제되는가?

(A)와 (B)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에 흔히 관찰되는 합성어만이 아니라 포함에 의한 명사 병치 구성도 허용되며, 구어적 현상이라는 하지만 (22), (23)에서 예시된 격조사 탈락이 허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C)에 대한 답은 N2가 비논항적 요소인 경우이다(cf. (13)과 관련 논의). (D)에 대한 답은 합성어의 경우이다. 두 구성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N2가 N1의 논항인 경우에 한하는데, 그 경우에만 N2의 포함이나 N2의 격조사 탈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구 내의 포함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도입하였다. 포함은 많은 언어에서 널리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은 명사구의 핵과 그것의 내재 논항이라는 환경에서도 포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사-목적어를 비롯하여 여러 어휘핵과 목적어 사이에서 포함이 허용되므로 명사와 목적어 사이에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명사구 내의 포함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명사 병치 구성에 대하여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함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론적, 통사적 환경을 포함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보다 명시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앞으로 진행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홍수 (1994). 속격 명사화, 명사 병치 명사화의 양상과 기능. 국민대 어문학 논총 13, 119-137.

- 박정섭 (1992). 중주어와 중목적어. *생성문법연구* 2(2).
- 박정섭 (2000). 불어의 DE와 한국어의 '의' 비교. *프랑스 어문교육* 9집.
- 임홍빈 (1998). 존재전제와 속격 표시 「의」. *국어문법의 심층2*. 태학사.
- Azoulay-Vincent, A. (1985). *Les Tours Comportant L'expression de + adjectif*. Genève: Geneve.
- Bartning, I. (1993). La préposition *de* et les interprétations possibles des syntagmes nominaux complexes. Essai d'approche cognitive. *Lexique* 11, 163-191.
- Bartning, I. (1996). Éléments pour une typologie des SN complexes en DE en français. *Langue française* 109, 29-43.
- Hulk, A. (1996). L'«autre» DE: une tête quantificationnelle? *Langue française* 109, 44-59.
- Kupferman, L. (1991). L'aspect du groupe nominal et l'extraction de EN. *Français moderne* 59(2), 113-147.
- Milner, J.-C. (1982). *Ordres et Raisons de Langue*. Paris: Seuil.
- Ruwet, N. (1982). *Grammaire des Insultes et Autres Etudes*. Paris: Editions du Seuil.
- Baker, M. (1998).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uber, J. S. (1976).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North-Holland.
- Hale, K. & S. J.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the MIT Press.
- Jackendoff, R. (1987). The status of thematic relations in linguistics. *Linguistic Inquiry* 18, 369-412.
- Travis, L. (1984). *Parameters and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achusetts.
- Williams, E. S. (1981). On the notion 'Lexically related' and 'Head on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245-274.

박 정 섭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bjsup@ccs.sogang.ac.kr

접수일자 : 2002. 2. 1

수정본 접수 : 2002. 7. 20

게재결정 : 2002. 8. 24